

#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요한 신학, 12회, 예수의 사역 사진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와 요한 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12, 예수의 사역에 대한 그림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인격과 그 사람을 묘사하는 그림에 대한 요한 신학에 대한 연구에서 예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요한의 제시로 옮겨가며, 성경 신학의 관례에 따라 그리스도의 사역을 제시하는 그림, 은유, 이미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개요. 들어올려진 인자-선한 목자.

신의 어린 양. 사제 희생. 1719, 종종 무시됨.

Victor, Christus Victor, Christ the Champion, 중요한 주제입니다. 한 구절에서 예수님은 국가를 위해 죽으실 분입니다. 11장.

가야바의 입에서 나온 예언.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 죽어가는 밀알입니다 --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

인자. 이제 강조점은 그 칭호에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들어올려진 인자에 있습니다. 우리는 3:11에서 15까지 보았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진실로 진실로 니고데모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나 너희는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땅의 일을 너희에게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같이 인자도 들어올려져야 합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방금 말했듯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인자 예수를 들어올리는 것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리는 모세의 예표에 대한 반대 예입니다.

민수기 21장.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르 산에서 , 민수기 21장 4절 , 그들은 홍해로 가는 길로 출발하여 에돔 땅을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길에서 참을성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느님을 거스르는 나쁜 생각이었고, 모세를 거스르는 나쁜 생각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나쁜 생각이었습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는 이 쓸모없는 음식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 보내셨고, 그것들이 백성을 물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와 당신을 거슬러 말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우리에게서 뱀들을 제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을 위해 기도했고, 주님은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기둥에 세워라. 물린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보고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하, 물렸을 때, 이것이 해독제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청동 뱀을 만들어 기둥에 세워 놓았고, 뱀이 누구를 물면 그는 청동 뱀을 보고 살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요한복음 3:14), 인자도 들어올려져야 합니다. 이는 그를 바라보고 믿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유형은 제가 그리스도를 대하는 사람 아래에서 제안한 것보다 더 확장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빌리자면, 반역한 자들은 이미 정죄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불뱀들이 사람들을 물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기둥 위의 뱀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아들과 일치합니다. 기둥 위의 뱀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을 포함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것도 그에 상응하는 대형입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자들은 물렸지만 벌을 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서 이미 정죄받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인자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용서받고, 면하고, 요한복음 3:15에 따르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흥미로운 연구입니다. 우리는 이 중 일부를 이전에 읽었습니다. 맥락을 파악하려면 27절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제 내 영혼이 괴로워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아버지, 이 시간에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 목적을 위해 이 시간에 왔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요한의 말로는 겐세마네와 같습니다. 나는 그것을 영광스럽게 했고,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군중은 오해했다. 그들은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들은 영적으로 너무 둔감하다.

하느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시면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천사가 말했다고 생각하거나 천둥을 칩니다. 예수님은 지금이 이 세상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서 쫓겨날까요? 내가 땅에서 들어올려질 때,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그림을 다룰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구원 대장 그림에 도달하면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것은 그가 어떤 종류의 죽음을 당할 것인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주요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들어올려져서 죽으실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어올려질 때,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입니다. 나는 인자의 들어올림에 대한 배경이 9번일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는 데에 대한 더 많은 합의가 있다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이사야 53장과 동일시되는데, 종의 끔찍한 고통 이전에, 놀랍게도, 우리가 겪는 피의 상처 이전에, 보라, 나의 종이여, 22, 13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사실 이사야 52:13에서 시작합니다. 보라, 나의 종이 지혜롭게 행하리라.

그는 높고 들어올려지고 높여질 것이다. 높고, 들어올려지고, 세 번 높여질 것이다. 이 승리 모티브가 있고, 그것은 포함이다.

이사야 53장은 전리품, 승리 등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은 모든 고통, 즉 끔찍한 고통에 앞서 그것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이 삼중 승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는 그가 들어올려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네 번째 복음서에서 들어올려지는 언어의 배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모세가 뱀을 들어올리는 것도 역할을 합니다.

12:32, 33, 내가 들어올려질 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뜻인가? 가능한 이해이지만,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28, 29, 인자의 음성에 사람들은 무덤에서 나와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과 정죄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여기서는 20절과 같습니다. 이제 절기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인들이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접견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그 접견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주석가들이 말하고, 저도 동의하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압박하고 있던 자신의 임재의 시간에 대해 즉시 말씀할 다른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시간을 가지고 일해야 했지만, 그 일부로서 그는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위해 정하신 것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세요, 그는 말합니다. 아버지는 하늘에서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마는 패배했고, 죽음과 부활을 기대하며, 그의 죽음과 부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기대하며.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어올려질 때,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이제 그는 그리스인들을 포함합니다.

이제 그는 믿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10:33은 그가 어떤 종류의 죽음을 당할 것인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전 구절에서 인자의 들어올림은 그의 십자가 처형을 가리키며, 저는 이미 이중적 의미라고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처형과 고통에 대해 말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분노를 사용하여 그분을 찬양하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8장에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선을 위해 악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그것은 승영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아, 맞아요, 우리는 3132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어떤 특별한 칭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의 방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역겹다. 예수는 이른 아침에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의 본거지로 인도되었다. 유대인들은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 총독의 본거지에 들어가지 않고 유월절을 먹을 수 있었다.

역겹습니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더럽혀지기를 원치 않지만, 지도자들과 한마음으로 그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합니다. 아, 그들은 이미 한 쪽 위로, 다른 쪽으로 더럽혀졌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밖으로 나가서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을 무슨 고발로 고발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그를 너희에게 넘기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들이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아니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직접 그를 데려가서 너희의 법에 따라 재판하라.

유대인들은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사형을 원합니다. 사실, 때때로 산헤드린이 사형을 집행할 수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이것은 정확히 옳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외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글썄요, 목을 노리고, 로마인을 통해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십자가형으로 말입니다.

때때로 그들은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스테반 사도행전 7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는 예수께서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를 보여 주기 위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자가 들어올려졌다는 것은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10장. 우리는 이미 이 일을 했으므로 빨리 갈 수 있습니다.

10:11.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돌보고, 사랑하고, 양을 돌보고, 양을 압니다.

그의 염려의 정도는 이렇습니다.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문자적 의미에서 목양 목회 사역의 기본 규칙에 따르면, 목자들은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양을 돌볼 목자가 더 이상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평범한 목자가 아니다. 그는 선한 목자이며,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고용된 일꾼과는 다르다.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14절.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압니다.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과 같고, 나는 아버지를 알고, 나는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칩니다. 나에게서는 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습니다.

나는 또한 그들을 데려와야 하며, 그들은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그것이 양들이 하는 일인데, 한 무리가 있고 한 목자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방인, 아버지를 믿는 이방인, 하나님의 양 떼,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17절, 내가 내 목숨을 내려놓음으로 다시 취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내게서 그것을 빼앗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내어놓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

그리고 28,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무도 그들을 내 손이나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양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이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죽으시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일으키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2:19-21, 22에서 이 성전을 사흘 안에 파괴하고, 내가 일으키리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17, 18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일으키십니다.

선한 목자 이미지는 영생을 주시는 분과 겹칩니다. 28절에서 보았듯이,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줍니다. 그들은 결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예수는 또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의 증거 주제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보라, 그는 예수를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빛이 아니었지만, 1:19-28, 그러나 그는 빛에 관하여 증거합니다, 1:29-34.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십시오. 그는 세상의 죄를 없애십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큰 희생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6절은 이것으로 돌아갑니다

요한은 그저,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 라고만 말하는데, 그때 그의 제자 두 명이 예수를 떠나 요한을 따른다. 그리고 요한은 그가 증인이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는 가리키는 사람이다.

그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는 메시아입니다. 그는 신랑의 친구로, 신부,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신랑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에게는 그렇지 않아. 그는 그저 친구일 뿐이야. 그는 최고의 남자야.

요한이 세상의 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 많은 추측과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 양을 식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속죄양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글에 동물이 언급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과 더 많은 것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은 유월절에 대한 좋은 주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레온 모리스의 주장을 지지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독단적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레온 모리스의 해결책을 지지합니다. 즉, 유월절은 구약 전체, 구약 전체의 희생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언급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성취하십니다.

그는 그것을 대체합니다. 히브리서의 가르침과 매우 다른 용어를 사용한 유사점을 다시 주목하십시오.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 구약의 희생은 갑작스럽게 중단됩니다.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인간 제사장, 심지어 대제사장을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성취하고 그것을 쓸모없게 만드는 위대한 대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는 물론 훨씬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 몇 마디에서도 세상의 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봅니다. 다행히도, 기독교 교회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을 항상 믿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을 위한 예수의 죽음에 근거합니다. 그것은 모든 인종, 모든 언어, 모든 지역에 사는 사람들,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는 오직 한 분의 중보자가 계시고, 그것은 바로 사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는 그를 믿는 자를 위한 중보자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놀라운 기도입니다. 오, 세상에, 정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하나 이상의 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9절에서 예수님의 제사장적 희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7 이미. 그들을 거룩하게 하세요. 예수님은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당신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당신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19.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노니 그들도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려 함이라. 우선 ESV가 17절에서 거룩하게 하라로 번역했고, 19절에서 거룩하게 할 수 있다고 번역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고 말할 때 사용한 정확히 같은 단어인 하기가조 입니다.

ESV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과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위해 자신을 따로 두심으로써 자신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나는 그것이 사제적 은유라고 믿는다. 그는 자신을 헌신한다. 그는 십자가에서의 그의 희생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

이것의 결과 중 하나는 그들이 진리 안에서 거룩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그는 그들이 거룩해지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의 자기 제사장적 헌신은 그를 이 행동 방침에 맡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한복음 17장의 언어로 그의 모든 백성을 정화하거나 깨끗이 하는 측면에서 제시된 구원의 독특한 근거입니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요한복음의 언어로 전체적으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 그들의 말씀을 통해 그를 믿는 모든 자들. 그것은 또한 그 구절의 바로 다음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대제사장으로 헌신하시고 제사장적 희생을 드려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헌신하셨습니다.

바울은 모든 신자를 성도로 만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합니다. 당신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세요. 당신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데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파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의 근거는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헌신하고 죄를 위한 독특하고 최후의 희생을 치르신 구속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Christus Victor는 1930년대에 Gustav Alain이 쓴 책의 이름입니다. 그는 거의 모든 사람이 무시했던 신약성서의 승리 모티브를 지적했기 때문에 신학에서 기술 용어가 되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형벌 대속을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일반적인 생각이나 심지어 예수를 그의 죽음의 본보기로 강조합니다. 알랭은 그들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성경의 주요 생각은 그리스도가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강력한 책이지만, 그 주장을 크게 과장합니다. 그가 히브리서의 주요 주제가 *Christus Victor*라고 쓴 것은 그저 눈이 멀었을 뿐입니다. 히브리서의 주요 주제는 우리의 희생이자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 2장에 *Christus Victor*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살과 피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도 같은 것을 공유하여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악마를 멸하고자 하셨습니다. *Christus Victor*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발, 1장과 7장과 9장과 10장에서, 1장.

1장에 아름다운 진술이 있습니다. 죄를 정결케 한 후,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았습니다. 그것은 두 장에서 *Christus Victor* 앞에 소개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일곱 장, 특히 9장과 10장에서 설명됩니다.

그렇다면 *Christus Victor*는 성경적 주제인가요? 네, 바울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주제는 아닙니다.

구스타프 알랭은 또한 그의 논제에 맞게 역사 신학을 매끈하게 다듬었습니다. 그것은 좋은 논제입니다. 그것은 무시된 주제입니다.

구약성서. 주님은 전사, 구약성서의 신성한 전사 모티브입니다. 모세의 기도, 출애굽기 15장.

야훼는 그리스도 승자 모티브에서 주 예수 안에서 육신화된 전사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림이 있고, 법적 형벌 대체도 주요 그림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2:31에서 이 그림을 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것이 이 세상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 세상은 까다로운 단어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가 만든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구세주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악한 세계 시스템도 하나님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

여기서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지금이 이 세상의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2:15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자랑스러운 삶의 교만함.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의 심판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까요? 이 세상의 왕자 또는 이 세상의 통치자는 사탄을 지칭합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 왕자이자 통치자입니까?

찬탈자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보셨죠. 예수님은 사탄이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이고 살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아담과 이브를 거짓말로 습격했습니다.

물론 , 당신은 죽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먹었을 때 영적으로 죽었고, 나중에 육체적으로 죽었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들이요.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반항적인 피조물인 사탄보다 훨씬 더 큰 방식으로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까요? 이것은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의 맥락에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들어올려지는 데에 있습니다. 바로 다음 구절에서 악한 자가 정복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3 1과 2 이제 유월절 전인데,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가는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을 때,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여기 승리자가 있습니다. 그는 승리에 확신을 가지고 항상 십자가로 가셨고, 그것은 예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시간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 여기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2절. 만찬 중에 악마는 이미 아들 시몬을 유다 이스카리옷의 마음에 넣어 그를 배반하게 했습니다

악마는 열두 유다 이스카리옷 중 한 명을 통해 신의 아들을 배신하도록 선동합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유다가 두 명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스카리옷이라고 쓰여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알패오의 아들 유다, 맞나요? 어쨌든, 여기서 악마는 유다를 선동하고(13:2), 그에게 힘을 줍니다(13:27). 유다가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소름 돋네요.

유다는 당신에게 사탄이 유다에게 영감을 주는 생각을 주고, 이제 그는 그에게 사악한 짓을 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들어올려짐을 통해서이지만, 그것은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끔찍하고 불명예스러운 죽음. 고통과 죽음. 아버지의 오른편으로의 영광스러운 승영의 시작.

아버지 께로 간다고 그는 28절에서 말합니다. 이제, 나는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했으니, 그것이 일어날 때, 너희는 믿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너희와 많은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악마야. 그는 나에게 아무런 권리도 없어. 다른 인간은 그렇게 말할 수 없고, 그래, 예수는 인간이야.

그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그는 인간입니다. 그는 신인입니다. 하지만 악마는 우리 나머지 모든 사람에 대해 권리를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에 대한 주장은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 악마의 유혹에 상응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합니다.

존재론적 종속은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동등합니다. 기능적 또는 경제적 종속이 있습니다.

아들은 단 한 번뿐 아니라 거듭거듭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뜻을 복종시킵니다. 왜? 신조에서 말했듯이, 우리 죄인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나는 세상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행합니다.

일어나, 여기서 떠나자.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온다. 그는 유다에게 영감을 주어 나를 배신하도록 힘을 주었다.

그 때가 가까웠습니다. 16:11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합니다. 16:6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떠나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가 오면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것은 복잡한 구절인데, 성령과 그의 사역에 대해 자세히 다룰 때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에 관하여 세상을 정죄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처럼, 죽거나 부활하시기 전에, 그는 마음의 눈으로 아버지의 현존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세상의 통치자는 예수님이 가기 전에도 정죄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물론, 그가 십자가에서 악마를 물리칩니다. 16:32, 그들이 흠어질 때가 옵니다. 제자들은 흠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33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너희가 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오,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네. 하지만 용기를 내라. 나는 세상을 이겼노라. 다시 말해서 일종의 예언이야.

그것은 그의 임사 부활과 승천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진술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는 가야바의 무의식적이고 우연한 예언인 이 호기심 많은 예언을 봅니다. 오, 세상에.

한 사람이 국민을 위해 죽는 게 당신에게 더 낫습니다. 그냥 웃기네요. 아이러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이 아이러니 중의 아이러니입니다. 세상에, 11:45-52. 그러므로 마리아와 함께 와서 예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을 보고 그를 믿는 유대인들이 많았더라.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가 행한 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통치 기구인 산헤드린의 의회를 소집했습니다. 오, 그들은 통치했습니다.

로마인들은, 맏소사, 이 유대인들은 정말 까다롭고, 그들의 법은 우리가 이해할 수조차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우리 밑에서 통치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대체로 자기들의 일을 처리하도록 둘 겁니다.

오, 그 유대인들은 정말 골치 아픈 존재들이야. 그들은 의회를 소집하고, 많은 표적을 행하는 이 사람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한다. 탈무드는 예수가 그랬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들은 많은 표적을 행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가 마술사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기적적인 요소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것을 어둠의 측면에 돌립니다. 그는 많은 표징을 행합니다. 세상에, 그는 방금 친구를 죽음에서 살렸습니다.

우리가 그를 이렇게 내버려두면 모두가 그를 믿을 겁니다. 그를 죽이지 않으면 온 나라가 그를 따를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를 것이고, 로마인들이 올 겁니다. 그가 시민 불안 같은 소동을 일으킬 테니까요.

로마군이 여기 올 것이고, 그들은 성전을 빼앗을 것이고, 우리는 심지어 예루살렘 도시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장소와 우리 민족을 빼앗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장소가 신의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 한 명인 가야바는 그 해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이 특정 기능을 수행한 것은 운명적인 해와 비슷한 의미이며, 예언자는 그들에게 너희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요세푸스는 사두개인들이 무례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그 예가 있습니다.

또한 당신은 한 사람이 국민을 위해 죽는 것이 온 나라가 멸망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정치적 편의주의의 진술입니다. 그를 잡아서 이 일을 끝내자.

그것이 그의 의미였지만, 의도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적 속죄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야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더 좋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해에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민족을 위해 죽는 것이 자신의 의도가 아니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위해 죽을 것입니다. 민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흠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요한복음 1:8을 들은 유대인 제자들과 같은 유대인들과는 달랐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대부분 지역으로 전파될 것입니다. 세상 끝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아마도 전 세계에 흠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의미했을 것이고, 하나님은 구약에서 선포하셨듯이 다른 것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를 생각해 보세요.

글쎄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시키실 것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아마도 같은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흠어진 유대인들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양들과 마찬가지로 이 우리 안으로 데려올 양들을 가지고 계셨으므로, 한 목자와 한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는 민족을 위해 죽으실 것이지만, 또한 흠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실 것입니다. 주석가들은 그것이 이방인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는 데 거의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그들은 그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야바의 말은 통합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 정치적으로 음모를 꾸밉니다. 하지만 발람의 나귀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은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구원에 미치는 의미에 대해 말씀하실 의도가 없었던 대체사장을 통해 예언하셨습니다.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예수의 사역에 대한 마지막 그림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이러한 것들 중 가장 집중된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속죄 주제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것은 속죄보다 더 큼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나오는 예수의 사역에 대한 이러한 그림들 중 일부.

요한복음 12:32, 33에서 인자의 들어올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31에서 승리자 그리스도, 챔피언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20-25에서 죽고 열매를 맺는 밀알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많은 구절을 함께 하는 주제라는 점에서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그림이 흩어져 있는 다른 곳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성서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요한 복음서에 고유한 밀알입니다. 우리는 가야바의 예언이 요한 복음서에 고유한 것처럼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장, 이제 절기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갈릴리의 벳새다 출신인 빌립에게 가서,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라고 물었습니다. 빌립은 가서 안드레에게 말했습니다.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님께 전하러 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지만, 그리스인들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32절에서 그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 더 알고자 하는 그리스인들까지도 모두 내게로 이끌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들의 요청을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흥미롭네요.

예수께서는 즉시 다른, 더 중요한 것들을 마음에 두셨습니다. 요한복음 12:23,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진실로, 나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의 죽음을 밀알과 동일시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것은 이중의 의미가 아니라 이중의 의무를 지닙니다. 그러나 먼저 그는 자신의 죽음에 관해 말씀하시고, 그다음 제자들의 사역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의 언어와 비슷합니다. 고대인의 생각으로는 씨앗은 죽습니다. 즉, 묻힐 때, 심어질 때, 심어진 씨앗은 죽습니다.

그것은 시야에서 사라지고, 다시는 그 형태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다른 몸으로 말합니다.

여기서 존은 씨앗이 죽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땅과 흙 속에서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고, 비와 햇빛 등을 받고, 그런 다음 싹이 트고, 밀알이 되어 밀을 생산합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 한, 그것은 홀로 남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에 대한 주석가들은 바로 그 맥락과 선행 맥락 때문에 예수를 이해하고 그가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밀알입니다.

그리스도론적입니다. 그는 밀알입니다. 그는 죽고, 그의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앞 구절들이 그가 밀알임을 지적하기 때문에, 다음 구절인 예수 자신은 그의 제자들에게 적용됩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 한, 그것은 홀로 남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요한복음 12:25.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위하여 그것을 보존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 종도 내가 있는 곳에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하실 것이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는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위하여 그것을 보존할 것입니다. 제자들도 밀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할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먼저 두고 예수님을 먼저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영원한 삶을 위해 그들의 삶을 보존할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하세요 . 요한이 아직 미래의 삶을 위해 삶을 사용한 곳은 많지 않습니다.

보통, 그것은 믿는 이의 이미 현재 소유인 영생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을 압니다, 요한복음 17:3. 그러므로 여기서,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은 무엇보다도 영광을 얻으러 온 그의 시간에 밀알과 같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는 죽고, 묻히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그의 죽음, 그의 걸보기에 몰락이 많은 열매의 원인이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그리고 스승처럼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밀알, 밀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미워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영원한 삶을 위해 그들의 삶을 보존해야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죽여야 합니다, 바울의 언어.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를 따르고, 그의 말씀을 행하고, 그를 섬겨야 합니다, 26.

아버지께서 그들을 존중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음 세상에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부자가 점점 더 큰 사일로로 지은 것처럼, 그날 그의 삶은 그에게 요구되었고,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다가 그것을 잃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여섯 가지 그림입니다.

그것은 일곱 개의 그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승천하심으로 들어올려진 인자-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다시 취하는 선한 목자.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제사장의 제사,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독특한 제사로 죽으셨습니다. 죽음에서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승리자이시며, 부활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의 적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사탄, 죽음, 무덤, 죄, 그리고 체계로서의 세상이 신에 대항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대제사장이 그렇게 말했듯이, 민족과 흩어진

이방인을 위해 죽으실 분입니다. 그와 그의 제자들이었지만, 그는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그들의 죽음이 구원적이지는 않지만, 그의 죽음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를 죽이고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데 하나님께 사용됩니다.

이것은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와 요한 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12, 예수의 사역의 그림입니다.